

베드로전후서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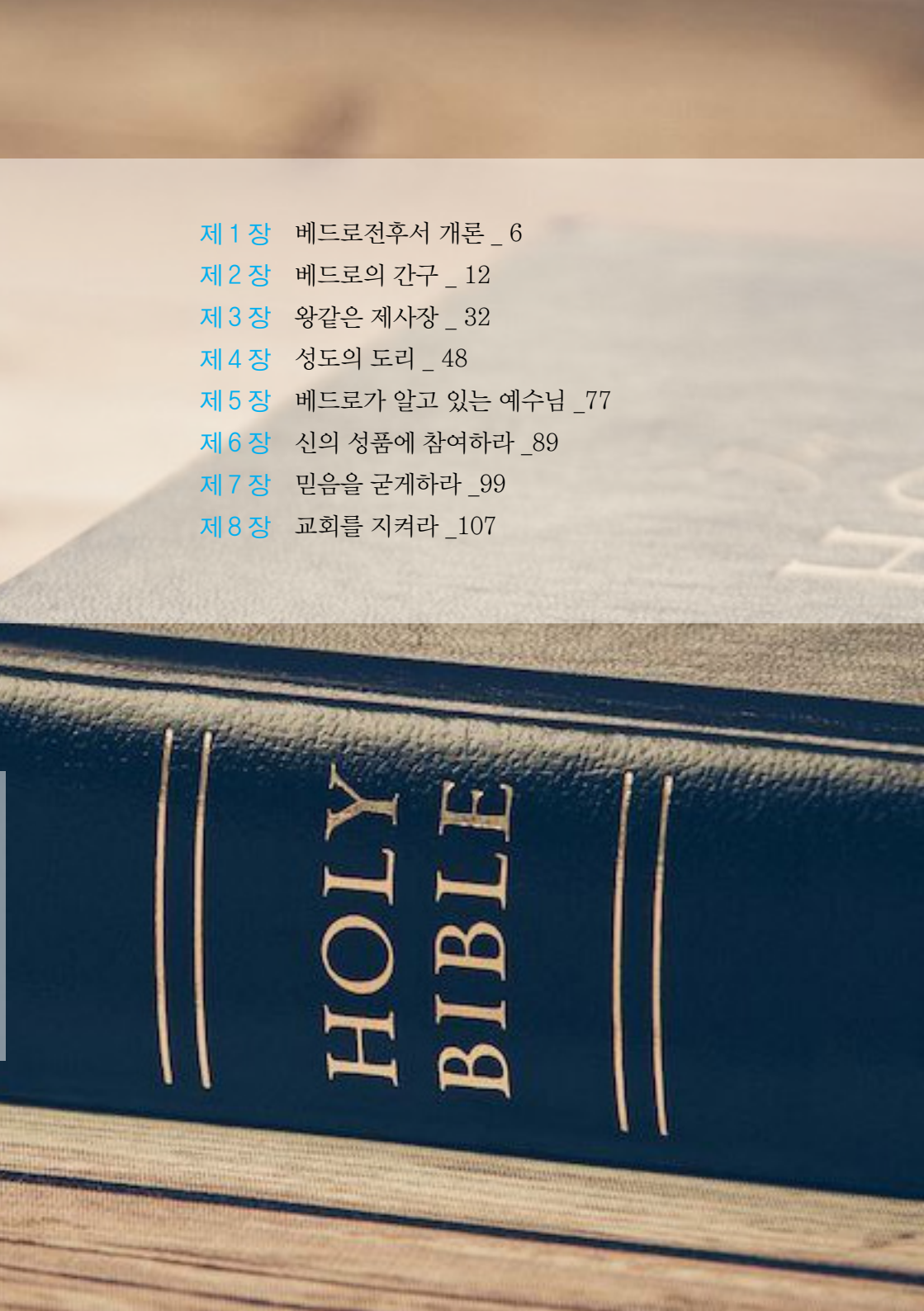
데이빗리 목사



홀리타임즈

목차

CONTENTS

- 
- 제 1 장 베드로전후서 개론 _ 6
- 제 2 장 베드로의 간구 _ 12
- 제 3 장 왕같은 제사장 _ 32
- 제 4 장 성도의 도리 _ 48
- 제 5 장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 _ 77
- 제 6 장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_ 89
- 제 7 장 믿음을 굳게하라 _ 99
- 제 8 장 교회를 지켜라 _ 107





1 장

/

베드로전후서 개론

제 1 장 베드로전후서 개론

오늘의 과제

- * 베드로전후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한다.
- * 저자가 왜 서신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이해한다.
- * 반원들과 함께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눈다.
- * 함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 * 베드로전후서의 암송구절을 택하여 암송한다.

한주간 숙제

- * 위바목상교재로 묵상하기
- * 성막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리기
- * 개인 영성일지 쓰기
- * 베드로전서, 후서 읽기

1. 저자

베드로전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벰전 1:1, 벰후 1:1). 베드로는 갈릴의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그는 시몬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벰후 1:1). 그는 그의 형제 안드레의 전도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에 의해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마 4:18-22).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주셨습니다(마 16:13-18). 이로써 베드로는 천주교의 1대 교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벰전 1: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벰후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마 4:18]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

3. 기록연대

베드로전서는 주후 62년과 64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바벨론'에서 이 서한을 기록했다고 나와있는데(벧전 5:13) 이곳은 아마도 로마를 상징하는 말로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베드로의 사망 시기를 로마 네로왕제 통치기간으로 봅니다. 네로의 기독교 대탄압 때였던 주후 64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후서 역시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고 추정될 뿐입니다.

3.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는가?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을 소아시아 지역 내에 있는 로마제국의 다섯 개 지방의 교회 회원들에게 이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지방들은 현재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는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였습니다. 베드로의 서한은 이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귀한 것이었

회는 어부라
[마 4: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
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 4:20]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마 4:21]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
큰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
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물
잡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마 4:22]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벧전 5:13]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이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벧전 2:19] 애매히 고난을 받아
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벧전 2: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
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
름다우니라
[벧전 2: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예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핍박을 따르는 것이라는 그의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벧전 2:19-23).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는 달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보내졌습니다(벧후 1:1). 이는 베드로전서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 기록되었던 것과는 사뭇 독자가 다릅니다(벧후 3:1).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가 자신의 마지막 고별인사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의 탄압과 핍박에 대해 극복하라는 메시인 것에 반해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내부의 배도였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과 이단 가르침에 대한 경고였습니다(벧후 2:1).

4. 특징

베드로는 고난과 박해를 받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사랑과 친절로 서로를 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벧전 1:22, 3:8-9). 또한 베드로전서 5장에는 교회지도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지 설명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영의 세계와 그곳에서 벌어지는 구원에 대한 문제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벧전 2:22]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벧전 2:23]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벧후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벧후 3:1]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들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벧후 2:1]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벧전 1: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벧전 3: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가 명확하게 다루져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에는 노아시대 때 살았으나 불순종함으로 죽임을 당하였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다른 성경책에는 없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동안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전파하시기 위해 방문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쇼킹한 내용입니다(벧전 3:18-20). 그만큼 베드로가 영의 세계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들도 살아있는 사람들과 같은 조건에서 심판을 받을 기회를 누리도록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벧전 4:5-6). 이 내용 역시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교회에서 문자 그대로 받아드리기 어려워하는 구절입니다. 가장 난해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보내졌으며(벧후 3:1) 죽음이 임박한 때에 쓰였습니다(벧후 1:14). 이 두번째 서신에는 베드로의 강력한 말씀과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그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추구하고 신성한 성품을 발전시킬 때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건하게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벧후 1:8).

[벧전 3: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감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3:18]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벧전 3:19]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벧전 3: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벧전 4:5]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벧전 4:6]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벧전 3:1] 아내 된 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벧후 1:14]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임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5. 목적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세상의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고난과 고통이 배어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성도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키우로 하나님의 속성을 얻고자 노력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벧후 1:4-8).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변형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며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웠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벧후 1: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벧후 1: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벧후 1:5]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벧후 1: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벧후 1: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벧후 1: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2 장

/

베드로의 간구

제 1 장 베드로전후서 개론

오늘의 과제

- * 베드로전후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한다.
- * 저자가 왜 서신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이해한다.
- * 반원들과 함께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눈다.
- * 함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 * 베드로전후서의 암송구절을 택하여 암송한다.

한주간 숙제

- * 워바묵상교재로 묵상하기
- * 성막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리기
- * 개인 영성일지 쓰기
- * 베드로전서, 후서 읽기

1.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벧전 1:1-2).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보혈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어 순종하며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가 흠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까? 당신의 삶에 거룩함과 순종함과 주님 보혈 뿌림의 증거가 있습니까? 왜 베드로는 성도를 가리켜 이 세가지가 구비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을까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이 세가지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흠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곳의 다섯 지역은 모두 소아시아에 위치한 곳입니다. 현재는 터키 타우르스 산맥의 북쪽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나그네'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파레피테모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2절의 '백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단어와 상반된 단어입니다. '백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단어는 <에클레크토이스>인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지만 <파레피데모이스>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1절에서는 '나그네'란 말을 사용했다가 2절에서는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그네'와 '택함을 입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떤 자녀들은 세상과 인연을 맺은 성도이지만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듯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 베드로는 이러한 조건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2절 중)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성령으로 거룩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으로 거룩해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2절 중). 여기서 '순종함'과 '피 뿌림'은 '위하여' <에이스>라는 말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입는 사람은 성령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며 반대로 성령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해진다는 의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 모임에 잘 참여하고 헌신하며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살며 다른 사람에 대해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사람의 경우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교회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피 뿌림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들이 피 뿌림에 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얼마나 중

요한 것인지에 대해 성도들이 깨달아 알도록 자신의 서신 서두에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 매우 중요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피 뿌림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귀한 물건을 잃어버리듯이 그렇게 귀한 복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온 집안을 다 뒤져가면서 힘써 찾으려 애를 쓰지만 정작 잃어버린 피 뿌림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주님의 피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피 뿌림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아니었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의 피 뿌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베드로처럼 깨닫는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듯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성경은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좀 더 깊숙히 들어간다면 주님의 보혈에 귀결되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피 뿌림'이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2절 중). 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라고 말하였던 것일까요? '피'와 '피 뿌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주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해서 저들이 모두 피를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피'와 '피 뿌림'은 다른 것입니다. '피'는 믿음의 단계라면 '피 뿌림'은 행함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살가운데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약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피를 뿌려야 합니다. 피를 믿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피를 뿌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뿌려야 할
니까? 유월절처럼 뿌려야 합니다. 유월절은 주님의 보혈이 뿌려
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출 12:22]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 [출 12: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려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
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바르는 행위는 뿌리는 행위보다 더욱 강한 것입니다. 바르는 행위
보다 붓는 행위는 더욱 강합니다. 성막에서는 뿌리고 바르고 남겨
진 피를 부었습니다.

"[레 4: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우리 삶에도 이러한 피 뿌림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피
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가 없습니다. 주님의 피를 구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린양을 잡지 않습니다. 잡을 이유도 없습니
다. 그래서 피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피
가 아닙니다. 영적인 피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 역시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저들
은 압니다. 저들은 주님의 피가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
는 믿음으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피를 보고서 뿌리는 것이 아
닙니다. 피 냄새를 맡고서 뿌리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이 죽는지
안 죽는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
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피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벌써 악한 세력이 파쇄되어 있음을 알
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
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다음에는 피 뿌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열려 세상 뿐 아니라 천국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거듭남으로 산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잇게 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벧전 1:3-4). 이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된 것인데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누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기업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당신의 삶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기업이 없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3절 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얻게 된 '산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정도로만 이해할 뿐입니다. 단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이며 훨씬 깊이와 높이가 큰 것입니다.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신 '산 소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4절 상)라고 '산 소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산 소망은 "...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4절 하)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벧전 1:3]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벧전 1: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산 소망'은 하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산 소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썩어지지 않게 하며 더럽히지 않게 하고 쇠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업'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하늘의 기업'은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게 만듭니다. 썩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헬라어 <아프달토스>입니다. 이는 '부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육신이 썩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방금 사가지고 온 돼지고기가 썩지 않도록 냉장고에 잘 보관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썩지 않고'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육신의 건강을 가르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육신은 건강할 것입니다. 썩지 않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말한 '하늘의 기업'은 우리로 하여금 더럽지 않게 합니다. 이는 더럽히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아미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깨끗함을 뜻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삶이 보다 깨끗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깨끗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깨끗한 삶은 우리의 혼의 영역이 깨끗해짐을 의미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말한 '하늘의 기업'은 우리로 하여금 쇠하지 않게 합니다. '쇠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마란토스>인데 이는 세상의 것이라기 보다는 천국의 개념입니다. 육신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영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의 공간이 있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쇠하여졌습니다. 영의 영역이 쇠하여짐으로인해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업이 임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영의 상태가 쇠하지 않게 되어 하나님과 깊이있는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육신이 썩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며 우리의 영이 쇠하여지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바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산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늘의 기업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 베드로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벧전 1:8-9).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믿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믿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왜 당신의 믿음의 결국과 베드로의 믿음의 결국이 다른 것일까요?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8절 상)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향한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며 그 믿음이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9절)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뭔가를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고통을 당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음을 당할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이 영혼구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엡 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벧전 1: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벧전 1: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4. 베드로는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했던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벧전 1:10-12).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 가르쳐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나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구원에 대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수고했다고 말하였습니까? 지금 당신에게 구원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구원에 대해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했던 그 수고가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드로는 저들이 그렇게 한 것은 "...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12절 중)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이러한 수고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결코 성경 읽는 것을 소홀리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5.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벧전 1:15-16). 이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벧전 1:10]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서

[벧전 1: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벧전 1: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피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벧전 1: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벧전 1:16]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16절). 이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며 깊은 동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이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입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야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온전한 십자가의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갖춘 사람은 십자가의 세로 막대기만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한 사람은 십자가의 가로 막대기만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십자가가 되려면 가로 막대기와 세로 막대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6. 베드로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벧전 1:18-19).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깨끗함

[벧전 1: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벧전 1: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을 입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우리가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 받았습니까? 당신을 묶고 있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은 무엇인지 살펴 봅시다.

베드로는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조상의 유전으로 인해 망령된 행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막 7:7]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막 7:8]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가 선지자가 언급했던 내용을 재차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사가 역시 조상으로 전해져 내려온 망령된 행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 29:13]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조상의 유전' 때문입니다. 조상의 유전은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유전에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조상의 유전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옳지 않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조상의 유전에 의한 망령된 행실을 행하였던 대표적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가증한 행위로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조상의 유전대로 예배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우리 주

변에 바리새인이 돼버린 사람을 보십시오. 저들이 바리새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조상의 유전 때문입니다. 저들이 그런 '조상의 유전'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가정에서 배웠을 수 있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상의 유전이 가장 많이 채워져 있는 저장소입니다. 마치 돈이 금고에 가득히 들어 있듯이 우리의 교회에는 조상의 유전으로 가득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바리새인 양성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바리새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수치입니다. 가문의 저주입니다. 결코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바리새인들이여, 조상의 유전을 버리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조상의 유전을 없애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9절).

우리는 조상의 망령된 유전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 보십시오. 조상의 망령된 유전이 있을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상의 유전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조상 중 어떤 사람이 만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만든 계명을 파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 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보혈은 왜 뿌려야 하는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속죄소와 언약궤 주변에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었 습니다.

"[레 16:14]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16:15]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성막에는 짐승의 피가 여러 성물에 뿌려졌습니다. 번제단에도 뿌려졌으며(레 3:2) 지성소 휘장

앞에도 뿌려졌습니다.

"[레 4:6]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이 모든 피 뿌림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마다 생명이 있으며 정결함이 있습니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이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문둥병자가 병치유함을 받고 깨끗하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슬초로 피가 뿌려졌습니다 (레 14장).

주님의 보혈은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에 마지막 재앙이 내려졌는데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도록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 중 그 어느 장자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출 12장). 이처럼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오늘날에도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주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는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보혈은 뿌려져야 하며 심지어 예배드릴 때에도 주님의 보혈은 뿌려져야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당신을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실 것입니다.

"[엡 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보혈을 통한 속죄

주의 보혈은 정결케 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또 다른 요소입니다. 회개는 그것이고 주의 보혈이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이 회개는 죄 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은 죄 씻음이 있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정결케 해 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7)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

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다음 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것은 보혈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눈에 십자가가 보이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박혀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다음 손과 옆구리와 발에서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주변에 아무런 십자가가 없다면 마음 속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만든 놋뱀 장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형상을 띤 놋뱀 장대를 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죽음을 면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민 21:8-9)

모세가 치켜 든 놋뱀 장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역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2. 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속죄도 없습니다. 속죄를 위해선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죄가 속죄함을 받으려면 당신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당신이 흘려야 할 그 피를 대신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벧전 2:24)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3.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믿겨지지 않을 땐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을 때 당신의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의지할 때 당신은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당신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당신 것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일생에 한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정결 그 자체이시고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당신 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직 당신 몸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 5:24)

세상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못 박으시고 안목의 정욕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도 함께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거듭 태어나십시오.

7. 베드로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하였습니다(벧전 1:22).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

[벧전 1: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하라고 권하였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혹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형제를 사랑치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21절 상)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역시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만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도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활의 복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복보다 더 귀한 세상의 복은 없습니다. 이렇듯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이 생겨납니다. "...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21절 하).

만일 당신에게 이러한 부활의 복음이 심겨져 있다면 당신은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치 않는 사람은 풍부한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사람도 부활의 복음이 그 심령 안에 스며 들어가면 저절로 기쁨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혼이 깨끗하여 진다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22절 상). 이런 사람은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간에 사랑하게 됩니다. "...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22절 하).

8.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었다고 했습니다(벧전 1:23).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거듭남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썩어지지 않는 씨와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으니라"(23절).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이뤄지지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이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너무나 방대한 것이어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알기는 여간 힘이드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으며 그 모든 율법은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을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든다면 십계명이라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이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계명이 너무나 간단하여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열가지의 계명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지키기엔 매우 힘든 것입니다. 하나 하나 깊이있게 공부해야 합니다. 내 삶에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 봐야 합니다.

[벧전 1: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 20: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 20:7]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 20: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 20:10]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 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 20: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 20:13] 살인하지 말지니라

[출 20:14] 간음하지 말지니라

[출 20:15]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3 장

/

왕같은 제사장

제3장 왕같은 제사장

오늘의 과제

- * 베드로전후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한다.
- * 저자가 왜 서신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이해한다.
- * 반원들과 함께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눈다.
- * 함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 * 베드로전후서의 암송구절을 택하여 암송한다.

한주간 숙제

- * 워바묵상교재로 묵상하기
- * 성막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리기
- * 개인 영성일지 쓰기
- * 베드로전서, 후서 읽기

1.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독과 꾀술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벧전 2:1-2).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나는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취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사모하라고 하였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모든 악독과 꾀술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릴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들로 하여

[벧전 2: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꾀술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벧전 2:2]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금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 <파산 카키안>은 단순히 '악의'와는 달리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무자비한 악들을 의미합니다. '웨홀' <돌론>은 '미끼로 끌어들이다'라는 의미의 <텔로>에서 유래한 말로서 '순전함'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속임'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외식' <휘포크리세이스>는 '아래'를 의미하는 전치사 <휘포>와 '심판'을 의미하는 <크리시스>의 합성어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상냥한척 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방하는 말' <파사스 카탈팔리아스>는 남을 향해 무고히 중상모략하거나 악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든 죄악들은 악의에 찬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더럽습니다.

"[롬 3:10]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더러움을 없앨 수 있는 묘약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짓'입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2절) 상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순전하고' <아돌론>란 뜻은 부정적 두어 <아>와 '유인하다'라는 의미의 <돌로스>가 합쳐진 안더로 '웨홀'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는 매우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신령한' <로기론>은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령한'이라는 뜻은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악독과 웨홀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모할 때에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해야만 하겠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참으로 열심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현저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3절)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보았으면 계속적으로 성경말씀을 취하라는 뜻입니다. 성경말씀은 그 맛을 아는 사람만이 계속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성경말씀은 꿀송이와

같아서 좀처럼 말씀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끝송이처럼 단 것인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좀처럼 말씀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시 119:103]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2. 베드로는 예수께서 산 돌이 되셨으니 우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권고하였습니다(벧전 2:4-5). 주님은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처럼 성화되어져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가 되라고 권고하였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란 누구를 닮은 삶입니까?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산 돌'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4절 하).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를 상징할 때 '산 돌'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이 '산 돌'이신 주님처럼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지고..."(5절 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길 원하였습니다. "...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5절 하).

'산 돌'은 영어로 'Living Stones'입니다. 돌은 죽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돌이 어찌 살아 있겠습니까? 하지만 죽어 있어야 할 돌도 주님께서 쓰시면 살아있는 돌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죽은 자 같이 더럽고 쓸모없지만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면 우리의 심령이

[벧전 2:4]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벧전 2: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산 돌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삶을 통해 죽은 자 같았던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산 돌'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 숨쉬게 됩니다. 주님께서 만지시면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3.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밝혔습니다(벧전 2:9 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당신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는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가리켜 "...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9절 상)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신분은 모두 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신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것이 혼과 육적인 부분을 통제하고 드러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요한도 영이 활성화될 때 비로소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이 잘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삼 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이 네가지 영적신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네가지 영적신분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족속' <게노스>는 '혈통' 또는 '출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둘째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 같은 '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녀들은 왕같은 자이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여기십니다. 사도요한은 주님께서 새언약 가운데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며 저들로 하여금 이 땅에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계 5:9]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산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 5:10]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도다 하더라"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앞으로 그렇게 이뤄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들 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 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가운데서 거룩한 나라된 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을 가리켜 '나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각 사람을 '나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계 22:1]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있는 거룩한 성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는 물입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생명을 지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거하는 자들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요한의 말을 자세히 보면 그가 천국 백성들을 가리켜 '만국'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만국' <에드노스>이라는 말은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언급하였는데 거기서도 '만국' <에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만국'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것인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계 21: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라는 말은 바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소유된' <페리포이에신>은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바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피로 그 값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계 5:9]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

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
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
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4.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
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벧전 2:9
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을 선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
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
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으로써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주님께
대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무
엇 때문에 당신은 전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의 영적 신분에 대해 설명을 한 후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우리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서 말았다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듯 네가
지 영적신분을 주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도'
입니다. '전도'라고 말을 하니까 벌써부터 뒷걸음치는 분이 있습니
다. 아마도 '전도'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심히 부담되는 말이 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9
절 하)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왜 '전도'해
야 하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
셨더라면 우리는 어둠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흑암에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
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앉아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에 거한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는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4:16]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빛으로 임하셨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둠의 자녀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저들에게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엡 5:8]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골 1: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런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입니다.

5. 베드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성도들을 향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하였습니다(벧전 2:11-12). 이는 이방인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

[벧전 2:11] 사랑하는 자들이나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벧전 2: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기 위함입니다. 나는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제어하라고 권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성도들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할 때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말에도 똑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 5: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가 언급한 '육체의 정욕'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정욕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 <사르키콘>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과 함께 우리 인간의 본성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육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하였던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는 기독교인보다 훨씬 선한 행실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보다 훨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6. 베드로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와 나라의 방

과 방백들에게 순종하라고 권하였습니다(벧전 2:13-14).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제도와 법을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무엇에 대해 순종하라고 권하였습니까? 왜 우리는 나라의 제도와 법과 왕과 방백과 위사람에게 순종해야만 할까요? 당신은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13절 상). 또한 베드로는 세상의 왕이나 방백들에게 순종하라고 권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제도와 왕과 방백들에게 순복하라고 할 때에 오직 '주를 위하여'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제도와 왕과 방백들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제도와 왕과 방백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고는 바울의 글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처럼 나라의 제도와 왕과 방백들에게 순종하라고 권하였습니다.

"[롬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가끔씩 기독교인 중에서 나라의 제도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라의 제도가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잘못을 행할 때에도 왕을 쫓아냅니다. 왕이 잘못된 행위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왕위에서 그를 내쫓습니다. 이런 일에 기독교인이 앞장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제도와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저들이 잘못된 행위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이

[벧전 2:13]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벧전 2:14]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대적할 때에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뜻대로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나라의 제도와 왕을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 베드로는 우리가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아야 하는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벧전 2:19-21).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실 때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까? 당신은 오직 선을 행할 때에 당하는 고난을 참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참고 있는지 나눠 봅시다.

베드로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 중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는 선을 행하였지만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이 있는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 거할 때에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할 때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에서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할 때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때 당하는 고난은 매우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선을 행하였는데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욕설을 듣거나 꾸지람을 듣게 될 때에는 화가 치밀어 오

[벧전 2:19]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벧전 2: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벧전 2: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롭니다. 애써 상대방을 위하여 만든 음식을 상대방이 먹기 싫다며 물리칠 때에도 화가 납니다. 누군가를 위해 신발을 깨끗이 닦아 놔는데 그 신을 신지 않고서 다른 신을 신을 때에도 화가 납니다. 내간에는 상대방을 위해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쓸데없는 일을 했다며 꾸지람을 들을 때 화가 납니다. 정성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장으로부터 일을 못한다고 꾸지람을 들을 때 화가 납니다. 잘못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자동차 딱지를 떼었을 때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처럼 화를 참기 힘듭니다.

이러한 고난은 '애매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19절)라고 말했습니다. '애매하다' <아디코스>라는 말은 '부당하게' 또는 '불의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이처럼 부당하게 당하거나 불의하게 당하는 고난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참고 인내함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당하는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러한 참고 인내해야 하는 부르심에 대해 설명할 때에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스도의 고난을 꺼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선행을 베푸셨는데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나와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참고 인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8.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벧전 2:24).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음을 입었습니다

[벧전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까?

▶ (그룹제안):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임하였습니까? 당신은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구속하여 주셨음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채찍 맞으셨을 때에 당신의 질병이 치유받았음을 믿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22절). '꾀사' <돌로스>라는 말은 '거짓'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종들이 저지르는 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그 어떠한 꾀사가 없으셨습니다. 이는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생각으로도 그 어떠한 죄를 짓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 53:3]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욕을 받으셨습니다. 부당하게 당하신 욕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당하게 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당하게 욕을 들으셨어도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23절 상).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욕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욕을 합니다. 되로 받으면 말로 준다는 식으로 욕 한 마디 들었는데 열마디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당하게 욕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욕을 되먹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23절 중). 이러한 고난 역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었지만 결코 그 고난 때문에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위협할 때 상대방을 공격하고 위협합니다. 심지어 가만히 있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위함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 심리적으로 낮아지게 만들어서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상대방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인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가장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나를 보셨습니다. 가장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더러운 나를 보셨습니다. 내가 올라가야 할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시는 주님께서 올라가 계셨습니다.

도리어 채찍질까지 당하셨습니다. 내 몸에 흔적을 지우시기 위해 주님의 몸에 흔적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등이 채찍에 의해 갈라질 때마다 내 몸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오히려 내 몸이 찢어지더라도 주님의 몸을 깨끗히 해 드려야 할텐데 도리어 주님께서 나를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 앉으셔야 할 보좌에 이 죄인이 앉았습니다.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주님께서 매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주님 품에 거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이 사실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얼마나 당신은 십자가 앞에서 우십니까? 지금 눈물이 흐르십니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당신은 아십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주님께 나아옵니다. 이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헤매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목자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감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형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25절).





4 장

/

성도의 도리

제 4 장 성도의 도리

오늘의 과제

- * 베드로전후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한다.
- * 저자가 왜 서신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이해한다.
- * 반원들과 함께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눈다.
- * 함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 * 베드로전후서의 암송구절을 택하여 암송한다.

한주간 숙제

- * 워바묵상교재로 묵상하기
- * 성막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리기
- * 개인 영성일지 쓰기
- * 베드로전서, 후서 읽기

1.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저들의 남편에게 순복 하라고 권하였습니다(벧전 3:1). 이는 저들의 순복함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자로 서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왜 아내들에게 저들의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권했습니까? '순복하다'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얼마나 남편에게 순복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통해 남편의 변화는 어떠합니까?

[벧전 3:1] 아내 된 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는 아내된 자들에게 귀한 권고의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잘못 들으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잘 새겨 들을만한 권고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할 때에 남편이 달라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1절). '순복하라' <휘포타소>는 말은 '복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뜻과 함께 '굴복하다'라는 말도 쓰입니다. 마치 하인이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굴복하다는 말에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단어의 뜻에는 '항복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눅 10:17] 칠십 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 보고를 할 때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항복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순복하다'라는 단어 <휘포타소>입니다. 베드로가 아내된 자들에게 '순복하라'고 권고할 때는 저들의 남편들에게 '굴복하거나' 또는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을 행해서 남편들에게 항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못난 남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좀처럼 신앙을 제대로 세워가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1절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들로 인해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의 남편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권고는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도를 순종치 않는 그런 남편을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뜻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상 이곳에 쓰여진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말은 <소조>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구원'은 '이익' <켈다이노>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한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에 순종치 않

는 남편들이 아내들의 순복함을 통해 순종하는 남편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이익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 일이 아내들에게는 매우 귀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할 때 억울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슬퍼해서도 안 됩니다.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빌 때에도 속이 터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순복하십시오. 그것이 숭고한 사명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찮은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2.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저들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들을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고 하였습니다(벧전 3:7). 이는 저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남편의 기도가 막히면 가정의 복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가 막히는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저들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들을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고 권했습니까? 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못했을 때 기도가 막히는 것일까요? 실제로 당신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도가 막힌 적이 있습니까? 왜 남편의 기도가 막혀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권고의 말을 전한 후에 곧 바로 남편들에게도 권고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큰 일 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평생 아내와 동행하며 사역했던 베드로에게 있어선 사실상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내들에게 권고를 먼저 하긴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자신

[벧전 3:7]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에게 먼저 권고의 말을 던졌을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먼저 권고의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고전 11: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남자의 머리이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만일 이 질서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 남편들에게 훨씬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하는 권고보다 오히려 남편들에게 더욱 무게감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와 동거하라고 권했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7절 상). '동거하다' <쉬노이쿰테스>는 말은 '함께 살다'라는 뜻의 <쉬노이케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단어는 성적인 관계와 관련된 말입니다.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아내와 동거하라고 명한 것은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고 오직 아내와만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늘 아내와 함께 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별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함께 잠을 자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도 베드로의 말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려는 이유 외에는 절대로 아내와 별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전 7:5]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직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결코 그 일로 인하여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틈으로 허용하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남편과 아내가 동거할 때에 비로소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임을 말했던 것

입니다. "... 이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7절 하). 이렇게 아내와 동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깁니다. 아내와 동거하는 남편 만이 아내를 연약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여자이고 한 남자의 아내라면 당신은 남편과 동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남편과 동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한다면 이미 당신은 남편에게 가장 못생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여자가 될 것입니다. 결코 당신은 남편으로부터 연약한 여자라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여자들이 남편과 동거하기를 싫어합니다. 철저히 거부합니다. 마치 겁탈하려는 남자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홀로 삽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홀로 살아도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여자는 연약한 존재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여자들을 대할 때에 "... 더 연약한 그릇이요..."(7절 중)라고 여기라고 권했습니다. '연약하다' <아스테네스>라는 말은 '힘이 없는', '약한'의 뜻입니다. 이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리킵니다. 이는 지적으로 연약하거나 도덕적으로 연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적 지위가 연약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육적으로 연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들은 아내들이 연약할 때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여자가 힘이 세면 무섭습니다. 여자가 두려워지는 이유는 저들이 힘이 세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들이 스스로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남자들은 은근히 좋아합니다. 두들겨 펴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연약함으로 남편 앞에 설 때에 남편은 그 아내와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영원히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7절 중)고 권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이와 같은 권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남편들로 하여금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7절 하). 이는 남편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자로서 마땅히 기도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남편이 기도를 하지 않을 때 가정이 무너집니다.

다. 이 일을 위해 아내들이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기도를 쉬도록 도와서는 안 됩니다. 결코 강해지지 마십시오. 결코 홀로 살아도 괜찮다는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결코 홀로 잠을 자지 마십시오. 결코 혼자서 밥을 먹지 마십시오. 결코 남편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결코 남편보다 더 힘이 세지지 마십시오. 아내가 남편보다 더 힘이 세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강력한 저주가 당신에게 임한 것입니다.

3.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권하였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하였습니다(벧전 3:9). 이는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다고 말하였습니까? 당신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8절)라고 권하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호모프로네스>는 말은 '같은'을 뜻하는 <호모스>와 '마음'을 의미하는 <프렌>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견이 일치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동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서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인 연합을 뜻합니다. 이는 서로가 사랑해야만 이런 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지식적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같기 때문에 함께 할 뿐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만나고 인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더욱 깊이있게 서로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더욱 관심을 갖기를 원한 것입니다.

[벧전 3: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체휼하다' <휼파데이스> 역시 서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단어 역시 합성어인데, '함께'라는 뜻의 <휼>과 '고통을 받다'의 뜻을 가진 <파스코>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합니다. 성도 중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9절 상)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9절 중)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9절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길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복을 빌어야 합니다. 마치 영어의 "God bless you!"처럼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라고 복을 빌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복을 빌지 않습니다. 행여 복을 빌어서 그 사람에게 복이 쏟아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좀처럼 복을 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이 자녀들에게도 보여집니다. 자녀들에게도 복을 빌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도 복을 빌어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욕하는 자에게도 복을 빌어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며 우리 배우자에게 복을 빌어야 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야 하며 불편한 관계가 아닌 사람이라면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복을 비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비로소 악한 자에게도 복을 빌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악한 자에게 복을 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다보면 어느새 나에게 욕하는 자에게까지 복을 빌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런 권고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 배웠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 10:12]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마 10:13]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주님께서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평안'은 <샬롬>이었습니 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서로 만날 때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서로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서로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는 백성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과 가장 많이 닮은 민족이 유대인이지만 복을 비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다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많은 복을 받은 이유가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말하며 서로에게 키스를 하고 빵을 맞대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며 안부를 묻습니다. 저들은 안부를 물을 때마다 "바룩 하 쉐(Barucha-shem)"으로 항상 대답을 하는데, 이 뜻은 "하나님이 복 주시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을 빌라"고 권고했을 때는 이러한 "샬롬"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 도리어 복을 빌라..."(9절 중)고 말했을 때 '복을 빌라'는 말은 '칭찬하다', '축복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올로게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는 것이 복을 비는 것보다 더 어렵 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칭찬하지 못합니다. "너는 잘 될 거야"라는 말은 잘 하지만 "너는 참 훌륭하다"라는 말은 좀처럼 사 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칭찬을 자주하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질 것 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칭찬을 해 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칭찬이 복을 빌어주는 것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그 를 칭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욕을 하는 사 람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를 한번도 칭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권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 복을 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4.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혀를 금하여 악한 말

을 그치며 그 입술로 궤흘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권하였습니다(벧전 3:10-11). 이는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궤흘을 말하지 말고 아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아라 권했을까요? 당신은 진정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로서 그런 좋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궤흘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10-11절)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우리가 악한 말을 그쳐야 하며 궤흘을 말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는 우리가 "...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10절 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결코 인생에 사망의 그림자가 덮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좋은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처럼 생명이 있길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금해야 합니다. 궤흘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악한 말을 하고 궤흘을 말한다면 당신은 생명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악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지 않는다면 좋은 날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좋은 날을 얻지 못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혀를 길드리지 않습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항상 열려 있어서 열린 입술로 궤흘이 쏟아집니다. 어찌나 심하게 쏟아지는지 막을 수

[벧전 3: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궤흘을 말하지 말고
[벧전 3: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가 없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만 행할 뿐입니다. 도무지 화평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싸울 뿐입니다. 그래서 어찌 생명이 있으며 좋은 날이 있겠습니까?

5. 베드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대해 누가 묻거든 즉시로 대답할 수 있도록 늘 예비하라고 권하였습니다(벧전 3:15). 나는 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갖게 된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늘 예비하라고 권하였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신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소망을 나눠 봅시다.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권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니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얻게된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소망에 대해 누구에게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예비하라고 권하였습니다. "...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15절 중).

'대답' <아폴로기안>은 재판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변호할 때 사용되어진 용어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소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혹 세상의 소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상의 소망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소망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것

[벧전 3: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입니다.

"[요일 2: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6.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하였습니다(벧전 3:16-17). 그리하여서 우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 더 유익합니다.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달게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하하였습니까? 혹 당신은 선한양심을 가지고서 행한 선한 일로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까? 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 더 나은 것일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16절 상)고 권하였습니다. '선한' <아가토스>이라는 말은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양심'은 거룩한 양심입니다. 이는 세상적으로 정직한 양심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덕적인 양심과 영적인 양심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심' <쉬네이데시스>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양심'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양심'을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선하게 살기 위해서

[벧전 3: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3:17]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는 '양심'이 잘 작동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양심이 잘 작동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짐승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주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되는 것은 저들이 '양심'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없는데 '양심'까지 없으면 이는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저들이 신앙도 없고 양심도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타락한 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하게 합니다. 믿는 자의 선한 행실은 믿지 않는 선한 행실보다 훨씬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 욕을 먹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악한 자들에게 끝까지 선한 양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이들이 부끄러워합니다. "...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16절 하)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17절)고 말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강조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악한 자를 대하여 악을 행합니다. 악으로 저들의 악을 갚으려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선을 행합니다. 나를 위해 선을 행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위해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의 선이 악한 자들의 악을 덮어야 합니다. 그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말을 보다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롬 12: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7.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좇는 것은 모두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벧전 4:3).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지나간 때에 행한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어떤 것들이 모두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혹 당신에게 이런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들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을 구분했습니다. 이방인은 육체의 정욕을 좇아 행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2절 중).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반되는 구조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두 군데서 사용되고 있는 '뜻'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는 서로 같은 단어이지만 헬라어로는 매우 상이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뜻에서 사용되는 '뜻'은 <불레마>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사용되는 '뜻'은 <텔레마>입니다. <불레마>는 확고한 목적성이 없어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변하기 쉬운 것을 가리키지만 <텔레마>는 어떤 목적을 위해 조금의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이 '뜻'을 세웠는데 자주 흔들린다면 어쩌면 당신이 세운 '뜻'은 이방인의 뜻일 겁니다. 이방인들이 갖는 세속적인 뜻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이방인인지 드러나게 하는 모습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숭배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3절 중).

'음란'과 '정욕'은 성(性)과 관련된 죄를 말합니다. '음란'은 절제되

[벧전 4:3]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 않은 정욕을 가지고서 부도덕한 성행위를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욕'은 사악한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감추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언제라도 드러날 수 있는 숨어있는 정욕이 있다는 말입니다.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은 모두 술과 관련이 있는 죄들입니다. '술취함'은 술에 만취된 상태를 말합니다. '방탕'은 술취한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락'은 술잔치를 베풀어 즐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이방인인 것입니다.

'무법한 우상 숭배'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부정점두어 <아>와 '허락하다'라는 뜻의 <데미토스>가 합쳐진 말로서 도저히 허락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3절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음란과 정욕에 붙잡혀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술에 젖어 술에 끌려다니면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술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해서는 안 되는 우상 숭배를 행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8.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벧전 4:8). 나는 형제의 죄를 사랑으로 덮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하였습니까? 진정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삶에서 당신은 형제의 죄를 사랑으로 덮을 때에 그 사람의 죄가 안 보인 적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8절 상)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

[벧전 4:8]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느니라"(8절 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형제의 죄가 덮여집니다. 만일 우리의 눈에 형제의 죄가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 눈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그 형제의 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형제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그 죄를 덮었으므로 그 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덮다'라는 말은 <칼립토>인데 이는 '덮다' 또는 '가리다'입니다. 숨기다란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죄를 가려야 합니다. 형제의 죄를 숨겨줘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요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9. 베드로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권하셨습니다(벧전 4:10-11). 이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나는 무엇을 말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우리가 말할 때와 봉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삶 가운데 베드로의 말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게 은사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벧전 4: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 4: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고전 12:7]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자랑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은사를 왜 자랑할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남들이 은사를 전혀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자기자신만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10절 하)라고 권했습니다. 결코 은사를 가지고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들떠있을 뿐입니다. 마구 돈을 뿌리듯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는 모습 뿐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진정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은사자들이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형제를 섬겨야 하며 다만 형제를 위해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11절 상)고 권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바울 역시 베드로와 같은 권고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골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께 감사하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말로 말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의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뜻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영동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올바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받을 복이 정확히 주어질 것입니다. 쫓겨나가야 할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10. 베드로는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벧전 4:12-13).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나는 인생의 불시험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까? ?

▶ (그룹제안): 베드로는 왜 우리로 하여금 불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하였을까요?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불시험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인생의 불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불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 "...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12절). '이상히 여기다'란 말은 사람이 마비될 정도로 매우 큰 충격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시험을 당할 때에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변화되고 맙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어떤 불시험을 당할 때 정신을 바로 잡지 못하고서 놓쳐 버리는 이유는 불시험이 너무나 크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은 좋은 것이 아닐겁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시험'은 즐거운 것이 아니지만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시험'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시험은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시험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시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 인생에 항상 존재합니다. '온다'는 말은 <기노메네>인데 이는 현재분사로서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이러한 시험이 '불시험'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보다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이 마비될 정도로 큰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마비시킬만큼 큰 충격적인 시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사가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

[벧전 4:12]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벧전 4:13]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는 것도 큰 충격을 주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자녀가 탈선하는 것도 큰 충격을 주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가족 중의 누군가가 병이 들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도 큰 충격을 주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시험이 우리에게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시험에서 피할 수도 없으며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존재하는 불시험이라면 어떻게 불시험을 잘 견딜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불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13절 상)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만나는 불시험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시험을 통해 고난을 받을 때 마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똑같이 체험하는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은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불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큰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 5: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 5: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1. 베드로는 우리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벧전 4:15). 이는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나는 좋지 못한 일로 고난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왜 베드로는 살인이나 도적질이

[벧전 4: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혹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인함이 아닌가요? 스스로 돌아 봅시다.

하지만 베드로는 "...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15절)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는 이런 행위들로 인해 당하는 불시험은 결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살인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도적질로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로 불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행을 통해 불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불시험은 우리를 즐겁게 하지도 않고 기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가운데 임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는 더러운 일로 불시험을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남의것을 탐내는 사람'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12.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벧전 5:1-2). 나는 하나님께

[벧전 5:1]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탈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벧전 5: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서 말기신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베드로의 권면 중에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고의 말을 할 때에 자기 자신도 '장로'의 한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1절 중). '장로'라는 말은 '감독'과 같은 말은 말입니다. 하지만 장로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며 감독은 직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인 사람 중에서 교회 감독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감독인 사람은 모두 장로입니다. 이는 장로인 사람만이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스스로 장로라고 말했던 것은 그 역시 장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감독직은 맡고 있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순회장로의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은 모두 장로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장로는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 남아 있어 교회를 지키고 돌보는 역할을 하지만 오늘날 목사들은 순회장로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담임목사는 교인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2절) 해야 합니다. '부득이함으로'라는 말은 억지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자원함으로 하는 것의 반대되는 말입니다. 어떤 장로들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혹 당신은 하기 싫어서 억지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일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3절)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 역시 양 무리의 본이 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나를 본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양 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있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고전 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

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감독(장로)이 지녀야 할 덕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디모데전도사와 디도서에서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딤후 3: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딤후 3: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딤후 3: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딤후 3: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 [딤후 3: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딤후 3:7]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음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딤후 1: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딤후 1:8]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딤후 1:9]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13. 베드로는 젊은 자들로 하여금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권하였습니다(벧전 5:5-6). 이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

[벧전 5:5]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벧전 5:6]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하였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해 겸손합니까?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도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 장로들에게 순복하고..."(5절 상)라고 권면했습니다. '순복하다' <휘포타소>라는 말은 '복종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항복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젊은 이들은 교회 장로의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든 복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장로들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항복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듯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젊은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성난 말처럼 될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이기도 하겠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기 싫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5절 중)고 권하였습니다. '허리를 동이라' <엡콤보오마이>는 말은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는 주인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노예들은 항상 주인 앞에서 자신들의 앞치마를 허리띠에 동여맸습니다. 이는 주인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내 보이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상대방에게 겸손을 표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서로들 고개를 쳐들고 목에 힘을 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 하나님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5절 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이어서 "...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6절 하)고 거듭 겸손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14.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권하였습니다(벧전 5:7).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

[벧전 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베드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있습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는 어떠한가요? 서로의 체험을 나눠 봅시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7절 상)고 권하셨습니다. '염려' <메림나>는 '나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이 나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가지 생각들로 가득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여러가지로 가득차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염려 덩어리를 주께 맡겨 버려야 합니다. '맡기다' <에피립토>는 '~에 던지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 덩어리를 주님께 던져 버려야 합니다. 마치 야구선수가 공을 던지듯이 그렇게 던져 버려야 합니다. 내가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염려는 나의 것이 되지만 그 염려를 던져 버리면 더 이상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울 때 깨끗해집니다.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결코 화려하거나 멋진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비워있는 그릇만이 주님의 기쁨을 담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만이 깨끗한 기쁨을 담을 수 있습니다.

"[딤후 2:20]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짚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딤후 2: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마음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는 주님께서 왜 '기도'를 강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염려를 없앨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집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것은 마음을 비우시기 위함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위함입니다. 총명한 기름부음으로 사역하시기 위해 마음을 비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염려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막 9: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염려를 버리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가 염려를 버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7절 하)고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은 그것을 놓았을 때 행여나 일이 잘못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도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권고하다' <펠로>는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란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품에 거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침범치 못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 121:3]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 121: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 121:5] 여호와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시 121:6]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시 121: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 121: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5.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벧전 5:8).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듯이 마귀는 그렇게 살지 않는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근신하고 깨어 있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베드로는 우리더러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마귀의 밥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근신하고 깨어 있는 삶이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8절 상)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다' <네포>는 술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깨다' <그레고레오>는 망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마귀가 오는지를 살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을 때 마귀의 밥이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8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마귀의 밥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마귀의 밥이 되었는데 어찌 자녀라도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는지 아십니까? 왜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로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우리가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근신할 수 있으며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벧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근신하고 깨어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당신을 찾으셨다면 더 이상 당신은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밥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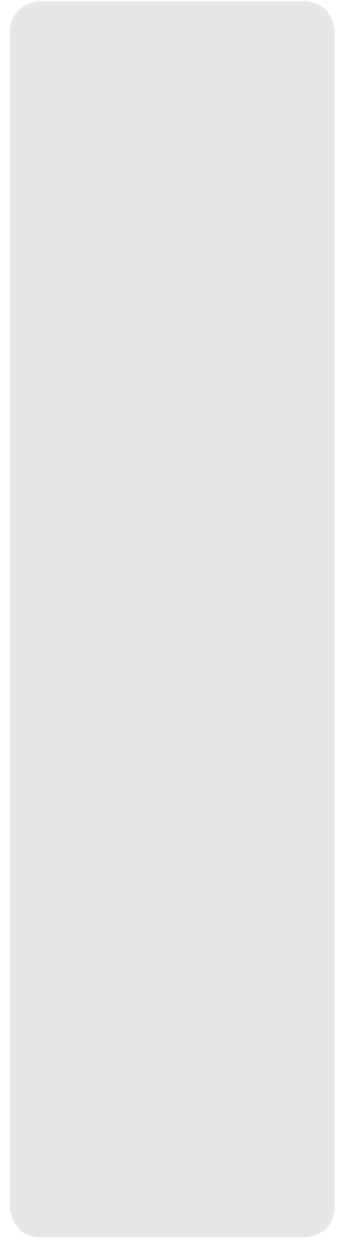
"[요 4: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밥으로 인정시도록 당신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에 있는 제물이 불에 태어지듯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십시오. 마치 진설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마귀가 당신을 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러지는 예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만이 영적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눈물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두 손 높이 들고 단 한 번 만이라도 간절한 찬양을 드려 보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그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마귀의 울무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더 이상 우는 사자의 울음 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우는 사자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뤘습니까? 얼마나 우는 사자 때문에 마음 붙들고 불안에 떨었습니까? 이제 자유하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의 심령에 평안함을 줄 것이며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다. 비로소 당신의 모든 육신이 건강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5 장

/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제 5 장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

오늘의 과제

- * 베드로전후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한다.
- * 저자가 왜 서신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이해한다.
- * 반원들과 함께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눈다.
- * 함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 * 베드로전후서의 암송구절을 택하여 암송한다.

한주간 숙제

- * 워바묵상교재로 묵상하기
- * 성막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리기
- * 개인 영성일지 쓰기
- * 베드로전서, 후서 읽기

1.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셨습니다(벧전 3:18).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대속을 통해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시지만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은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주님의 대속

[벧전 3:18]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사건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함께 나눠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속 사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18절 상).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육신의 부활이라기 보다는 영의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육신과 함께 부활하셨지만 이 육신은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그런 육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18절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때 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천사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 12:25]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육신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과는 다른 육신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람의 육신과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닫혀진 문을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벽을 통과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육신의 다른 점입니다.

[요 20: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한 육신의 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모습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막달라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녀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줄 알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도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 20:15]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

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
인 줄로 알고 가도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
다"

2. 예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벧전 3:19-20). 이들은 전에 노
아의 날에 순종치 않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모
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믿
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사랑하십니다. 나
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
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왜 예수님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
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당신은 이 세
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
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가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19절)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참으로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기독교 복음에 일대 큰 충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죽은 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옥에서 복음을 받아드려서 구원받는 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으로 난해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구절이 어려웠으면 마틴 루터도 이 구절에 대해 해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내에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누구의 해석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구절에 대해서 혼동스러워하는 풍경은 비단 이 시대 뿐

[벧전 3:19]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벧전 3: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구절에 대한 이해에 대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서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죽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도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흔적이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전 15:29]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바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행해졌습니다. 이는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베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은 자를 위한 의식 행위는 잠시 잠깐 행해졌을 뿐입니다. 2천년 역사를 통해 다시는 그러한 의식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베풀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예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19절).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기간동안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을 방문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옥에 있는 영들을 방문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저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세상과 벗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저들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들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20절 상).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께서 죽은 자를 위해 옥에 있는 자들을 방문하지 않으실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채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에 죽은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죽어가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노아 시대에 죽은 자들을 방문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 기독교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왜 주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그 이유에 대해 언급을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학자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대적자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루터의 마음 속에 죽은 자의 세례에 대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수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3.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에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고 죄에서 떠나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함을 권고했습니다 (벧전 4:1-2). 이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당신은 '육체의 고난'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저가 또한 영으로 육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19절)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참으로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육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기독교 복음에 일대 큰 충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죽은 자들에

[벧전 4:1]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에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벧전 4:2]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게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옥에서 복음을 받아드려서 구원받는 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으로 난해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구절이 어려웠으면 마틴 루터도 이 구절에 대해 해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내에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누구의 해석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구절에 대해서 혼동스러워하는 풍경은 비단 이 시대 뿐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구절에 대한 이해에 대해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서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죽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도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흔적이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전 15:29]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바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행해졌습니다. 이는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베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죽은 자를 위한 의식 행위는 잠시 잠깐 행해졌을 뿐입니다. 2천년 역사를 통해 다시는 그러한 의식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베풀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예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19절).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 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기간동안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을 방문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옥에 있는 영들을 방문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저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세상과 벗하며 살 았다 할지라도 저들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들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20절 상).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께서 죽은 자를 위해 옥에 있는 자들을 방문하지 않으실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채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에 죽은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죽어가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노아 시대에 죽은 자들을 방문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 기독교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왜 주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그 이유에 대해 언급을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학자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대적자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루터의 마음 속에 죽은 자의 세례에 대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수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4.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보았음을 말했습니다(벧후 1:16-18). 그는 변형의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셨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

[벧후 1: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벧후 1:17]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벧후 1:18]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림하심에 대한 확신이 적을 까요? 베드로와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함께 그 이유를 나눠봅시다.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16절 상)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성도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실체가 아주 오래된 전설과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훨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만해도 살아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에 대해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위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래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 더욱 신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살아 생전에 얻는 영광보다 죽은 후에 큰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기에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수천년 전에 계셨던 분이셨다면 베드로에게 많은 도움을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함께 하였던 분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일과 그 분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밝히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임을 설명하기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밖에는 달리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설명보다도 그가 하나님아버지로부터 직접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누구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막 9:7]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막 9:8]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변형의 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 머물 때에 그는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들려주신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 음성이 사람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세 제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보다 확신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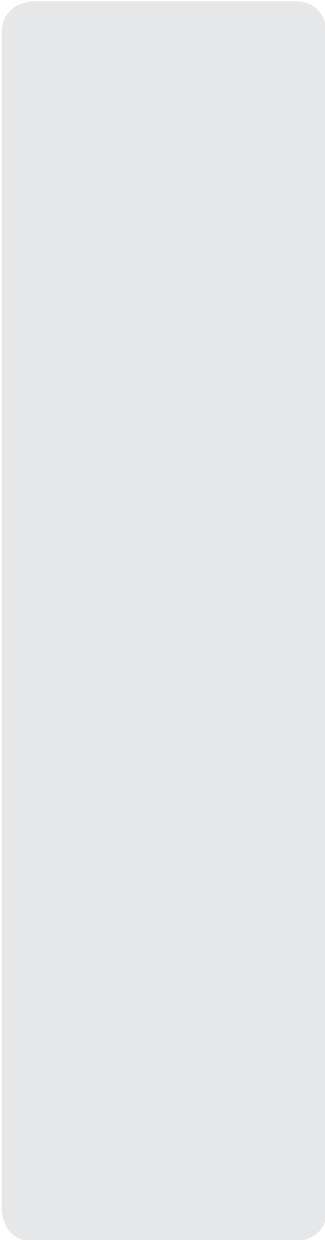
우리도 이러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 음성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은 베드로에게만 들려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전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들을 귀가 열린 사람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 3: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 3: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만일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찌 십자가에 매달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군중들과 함께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 자들.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6 장

/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제 6 장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오늘의 과제

- * 베드로전후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한다.
- * 저자가 왜 서신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이해한다.
- * 반원들과 함께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눈다.
- * 함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 * 베드로전후서의 암송구절을 택하여 암송한다.

한주간 숙제

- * 워바묵상교재로 묵상하기
- * 성막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리기
- * 개인 영성일지 쓰기
- * 베드로전서, 후서 읽기

1.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벧후 1:4).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약속'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누

[벧후 1: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4절 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큰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큰 약속을 받은 자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들 중에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큰 약속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큰 약속에 참여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구원의 대열에 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2.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벧후 1:5-9). 만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소경과 같은 자입니까?

▶ (그룹제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성품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신의 성품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부족한 성품은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성품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는 "...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5-7절)고 말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내용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의 말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품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성품을 여덟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은사의 기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사가 역사를 하게 됩니다. 믿음은 나의 정체성을 밝혀 주며 나로 하여금 자신감을 부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빛이

[벧후 1:5]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벧후 1: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벧후 1: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벧후 1: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벧후 1:9]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케 하심을 잊었느니라

든 할 수 있으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 믿음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 <아레테>란 '선(goodness)'을 뜻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덕'이 있는 사람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도덕적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도무지 그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보다 나은 위치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끌어 내리려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며 대화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이 '덕'이란 단어 <아레테>는 신약성경에 모두 4회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 3회가 베드로 서신에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벧전 1: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앞으로 말미암으리라"

특별히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에서 '덕'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 더욱이 윗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덕'의 성품이 곧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신 '덕'의 성품처럼 닮아야 한다고 힘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베푸는 선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덕'은 매우 귀중한 성품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덕'의 성품에 '지식'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의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시스>인데, 주로 영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지식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에 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서신 가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찌어다"(벧후 3:18)고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삶에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식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보다는 세상 지식을 더 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려고 하기보단 세상을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은 일주일에 단 한 장도 읽지 않으면서도 소설책이나 공상과학책을 더 많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려고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읽을 이유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베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품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의 하나의 덕목입니다.

"[갈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신약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절제'는 주로 음란한 것에 대한 절제하는 성품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이나 정욕을 제어하는 성품으로써의 뜻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이 '절제'라는 단어는 음란의 정욕을 억제하는 그런 뜻으로 말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자기자신의 못되고 거친 성품에 대한 절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화를 냅니다. 거친 성격 때문에 상대방을 잘 이해하려고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해하게 됩니다. 천천히 잘 대화를 나누면 쉽게 풀어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육체와 생각을 너무 혹사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육체와 생각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육체와 생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의 것에 절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누는 시간을 더 많이 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는 '인내'라는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 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인내'라는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내'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절제'가 필요한 법입니다.

다. 바울은 로마서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줄 앎이로다"(롬 5:3-4)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닥쳐와도 그 환난 속에서 화내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절제함이 있을 때 비로소 '인내'라는 성품이 빛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마 18:21)라고 주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찌니라"(마 18:22)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든지 용서하고 항상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용서할 줄 모르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할 것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작 자신이 죄를 범해놓고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정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똑 같이 그 형제에게 원수를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제의 죄를 모른 채 눈감아 줍니다.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성품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형제를 용서하고 하셨을 때는 그 형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잊어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뺨을 때렸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의 뺨을 돌려 친다면 그것은 '원수를 갚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신의 뺨을 때렸을 때 그 사람이 당신 뺨을 친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되돌려 때리지는 않는 것을 '증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당신의 뺨을 때렸을 때 그 사람이 당신 뺨을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용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오직 '인내'함이 있을 때 비로소 형제를 용서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인내'가 '경건'의 성품을 만들어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경건'은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이러한 '경건'은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성품입니다. 성경에 '경건'에 대해 무수히 많은 구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경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벧후 3:11-13]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

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 도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경건'한 성품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사람이 마땅히 지녀야 할 다섯번째 성품입니다.

경건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선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스스로를 절제하며 인내하는 과정은 경건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 매우 중요한 성품들입니다. 이것들 외에 부수적인 훈련으로는 말씀을 열심히 읽거나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때때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TV를 안 보는 것도 금식입니다. 세상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것도 금식입니다. 쓸데없이 하는 눈쇼핑을 금하는 것도 금식인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높게 쌓여진 사람에게는 항상 고요함이 있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가 더 잔잔하듯이 요동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얻습니다.

그러한 '경건'의 성품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줄 압니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마 19:19)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의 아픔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의 잘못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형제 사랑이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요일 4:20)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우리에게 형제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고 가까이 지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자"(요일 2:9)라고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서 마지막 단계인 '사랑'의 성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흔히 부모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 자이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육적이고 혼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육적인 사랑을 에로스(eros)나 스토르게(storge)로 구분합니다. 에로스는 연인간의 사랑을 말하고 스토르게는 가족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혼적인 사랑에는 필레오(phileo)가 있습니다. 이 필레오는 서로 생각과 원하는 것이 같은 사람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친구사이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가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영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말로 비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여덟가지 성품을 기록한 후에 곧 바로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벧후 1:9]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케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여덟가지 성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성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원시치 못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미래를 내다 볼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인데다가 자신의 앞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한심한 사람일 것입니다. 중국에 황사현상이 있어서 온 도시가 황토색이 되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황사현상이 극심합니다. 미국엔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때문에 차들이 도로변에 멈춰 서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경은 눈이 먼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육체적인 문제보다 눈을 볼 수 없는 육체적인 문제는 어쩌면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신의 앞 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은 혼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지혜로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판단하고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혼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미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적으로

문제인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까지 장애를 일으킵니다. 혼적인 사람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보다 혼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들은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천국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원죄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비록 어느 한 때에 원죄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원죄에 빠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가 권한 여덟 가지 성품이 자신에게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베드로의 말처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벧후 1:11)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을 때 이 글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글은 어쩌면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역시 성도를 사랑했던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권고를 따르십시오. 소경이 되지 않으려면 여덟 가지 성품을 잘 갖추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권세가 당신에게 항상 드러날 수 있도록 열심으로 여덟 가지 성품을 갖추십시오. 가급적이면 여덟 가지 성품에 관한 구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와 함께 열심으로 당신의 삶에 여덟 가지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그 동안 바울이 언급한 아홉가지 성령의 열매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베드로가 권한 여덟 가지 성품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듯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성품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만, 여덟 가지 성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성연 가족 모두가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도 갖추고 또 하나님의 여덟 가지 성품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7 장

/

믿음을 굳게하라

제 7 장 믿음을 굳게하라

오늘의 과제

- * 베드로전후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한다.
- * 저자가 왜 서신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이해한다.
- * 반원들과 함께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눈다.
- * 함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 * 베드로전후서의 암송구절을 택하여 암송한다.

한주간 숙제

- * 워바묵상교재로 묵상하기
- * 성막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리기
- * 개인 영성일지 쓰기
- * 베드로전서, 후서 읽기

1.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하였습니다(벧후 1:10).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즉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을 굳게 할 때 실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부르심과 택하심 모두 굳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10절 상)고 권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과 '택하심'을 바로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벧후 1:10] 그러므로 형제들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라

부르심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함으로써 실족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클레시스>이라는 단어는 '부름'이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콜링'(calling)을 받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나라에서 군인을 부를 때에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주인이 하인을 부를 때에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모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단지 목사나 선교사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 43:7]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서 세상을 위해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과 택하심을 모두 굳게 하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했을 때 비로소 실족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10절 하).

이러한 해석은 부르심과 택하심의 보다 넓은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좁은 해석도 가능한데 그 좁은 해석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부름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부름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의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초청되었지만 그 중의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초청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쫓아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복을 갖춰 입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는 천국의 옷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마 22:1]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 22: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 22:3]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마 22:4]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마 22:5]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마 22:6]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마 22:7]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마 22:8]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함당치 아니하니 [마 22:9]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마 22:10]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마 22:11]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마 22:12]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여늘 [마 22:13]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이르리라 하니라 [마 22: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청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택함을 입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습니 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청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세상으로 쫓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는 이 예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어야 택함까지 받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을 때 비로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택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세마포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빨아진 옷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묻은 옷이어야 세마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이 묻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천국에 거하는 144,000명의 거룩한 신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옷을 빨 자들이었습니다.

"[계 7:13]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
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계 7: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
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
라"

우리는 베드로의 권고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부름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택하심도 함께 따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생활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주님의 보혈이 없는 감사함은 택하심을 입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세와 권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세력이 우리를 침범치 못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빨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으로 더럽혀진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단지 주님이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단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삶에 보혈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보혈이 묻어야 하며 우리의 행동에도 보혈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보혈

에 잠겨 있어야 보혈로 옷을 빨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빨 때 어떻게 빠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혈로 옷을 빨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혈로 옷을 빨다는 표현은 우리의 영혼육 전체를 보혈로 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때묻은 옷이 물 속에 잠기듯이 그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보혈 속에 잠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혈로 빨 옷을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 61:10]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
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2.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 항상 생각나게 해 주길 원했습니다(벧후 1:11-15). 우리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무엇에 대해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 항상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러한 노력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베드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항상 일깨워주길 원했습니다. "... 너희가 이

[벧후 1:11]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벧후 1:12]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벧후 1:13]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벧후 1:14]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벧후 1:15]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12절).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가 죽은 후에도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15절).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쓰기 보다는 글을 읽는 독자를 위해 씁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글을 읽을 독자들을 위해 이 글을 썼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글이 지금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글을 읽을 때 그가 얼마나 참다운 목회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은 베드로의 마음을 본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진리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러한 노력도 없이 어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택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8 장

/

교회를 지켜라

제8장 교회를 지켜라

오늘의 과제

- * 베드로전후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한다.
- * 저자가 왜 서신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이해한다.
- * 반원들과 함께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눈다.
- * 함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 * 베드로전후서의 암송구절을 택하여 암송한다.

한주간 숙제

- * 워바묵상교재로 묵상하기
- * 성막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리기
- * 개인 영성일지 쓰기
- * 베드로전서, 후서 읽기

1.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벧후 1:19-21).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에 대해 무엇을 주의하라고 권하하였습니까? 당신은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성경말씀을 사사로이 풀다는 사실을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벧후 1:19]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샹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벧후 1:20]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벧후 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는 "...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20절)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둔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 스스로에게 먼저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 역시 성경을 가진 자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성경을 읽는 자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이 성경말씀을 인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최대한 성경말씀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 스스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보다 정확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표자로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가지고서 자신의 뜻을 세우는데 이용하게 됩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자들을 알고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자들이 성경말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사역을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말씀으로 그 사실을 주장합니다. 반대로 성령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도 성경말씀으로 그 사실을 주장합니다. 파는 사람도 성경을 이용하고 사는 사람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남편도 성경을 이용하고 아내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부모도 성경을 이용하고 자녀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자도 성경을 인용하지만 침략을 당하는 자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는 말은 사사로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로이'란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사로이 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이'라는 말은 <이디오스>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 또는 '개인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이는 성경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곧 '사사로이' 푸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회 지도자로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온 세상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로마제국도 성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적으로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남게 하십시오. 성경 그 자체적으로 빛이 나게 하십시오.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성경을 푸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지 마십시오. 맞지 않는 열쇠로 문을 열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마음을 비우십시오. 세상의 철학으로 성경을 덮지 마십시오. 온전히 성경 자체로 빛나게 하십시오.

2.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벧후 2:1).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거짓 선생과 함께 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행하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혹 당신은 거짓 선생의 꾀임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거짓 선생을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내의 '거짓 선지자'의 존재가 매우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거짓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벧후 2:1]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교회 내의 '거짓 선생'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말로서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위험성은 그들이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케 하고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1절 하).

'이단' <하이레스시스>라는 말은 '종파', '당파'를 의미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교회 내에 종파나 당파를 만듭니다. 어떤 그룹을 짓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멸망할 자들을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저들은 저들과 함께 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저들을 좇습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2절 상).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그런 행위를 가리켜 '호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호색' <아셀게이아>이라는 말은 '방탕'하거나 '호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들이 교회 내에서 방탕하거나 호색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들의 행위를 그렇게 저급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방탕하게 만들거나 호색하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겠지만 저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방탕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호색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들을 가리켜 호색하는 자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을 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거짓 선생의 밥이 되고 맙니다. 원래 성도를 잡아 먹는 것은 마귀가 해야 하는 몫인데 그 일을 거짓 선생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은 마귀의 앞잡이와도 같습니다. 이들을 통해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내에 거짓 선생이 존재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저들이 그룹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럿이 모여 당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담임목사의 결정을 방해하는 그룹이 있다면 저들은 거짓 선생이 만든 당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보면 압니다.

3. 거짓 선생들은 탐심을 가지고서 저들 스스로 지은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벧후

2:3). 이는 저들이 스스로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거짓 선생을 좇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나는 거짓 선생을 좇으므로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거짓 선생들이 스스로 지은 말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은 거짓 선생들로인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거짓 선생은 얼굴에 "나는 거짓선생이요"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거짓 선생인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짓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바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선생들에게는 '탐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서 너희로 이를 삼으니..."(3절 상).

거짓 선생들에게는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플레오네티아>는 '탐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탐심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 생겨납니다. 이러한 탐심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탐심 때문에 '거짓 선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참된 선생이었다 할지라도 저들 심령에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 급세 거짓 선생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탐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 탐심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 보십시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거짓 선생입니다. 아직은 거짓 선생이 아닐지 모르나 조금 있으면 거짓 선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모든 것을 취하려는 사람도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지만 좀처럼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도 탐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남이 갖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탐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자를 보면 괜히 미워지는 사람도 탐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남의 것이 탐나는 사람은 무조건 탐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런 탐심가득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최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3절 하). 저들은 탐심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벧후 2:3]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행여 나에게 그런 탐심이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남의 것을 탐내고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남에게 주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당신의 야망이 탐심 때문에 빛나고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당신의 권력이 탐심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탐심으로 높아질 수는 있으나 결국은 떨어질 낭떠리지입니다.

4.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구덩이에 가둬 두시고 세상에 홍수로 사람들을 죽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이유가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벧후 2:4-6). 우리는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도록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멸망하신 자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하겠습니까? 노아의 홍수에 당신이 살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만일 당신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멸망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살펴 봅시다.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베드로는 몇 가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저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거하게 하셨음을 먼저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

[벧후 2: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벧후 2:5]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벧후 2: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4절). 이러한 일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로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러한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계 20: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왜냐하면 아직 타락한 천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에 던져져 그곳에 갇혀 있다고 말한 것은 저들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타락한 천사들은 지옥에 떨어질 운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루시퍼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늘전쟁에서 루시퍼가 패배를 당했을 때 루시퍼와 함께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한 베드로는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분이 되는 일로써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만 보존되고 나머지 경건치 못한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5절 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신 이유는 세상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경건치 못한 자들로 인해 세상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셨는데 이 또한 경건치 못한 자들을 불로 죽이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경건치 못한 자

들을 멸망시키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경건치 못한 자들은 '거짓 선생'과 저들을 따랐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사람이 죽고 소돔의 유황 불로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범죄한 천사들을 예로 들은 것은 거짓 선생들의 행위가 마귀에 의한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생을 따르는 자들 역시 경건치 못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들 역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내에 있는 '거짓 선생'과 저들을 따르고 있는 성도들은 타락한 천사들처럼 타락한 성도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에 의해 옥에 갇히듯 오늘날 저들은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 날마다 옥에 갇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들 스스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록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옥에 갇혔을지라도 저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사실을 알지만 거짓 선생들과 저들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악한 자에 의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저들의 눈이 가려졌고 마음이 어두워진 까닭입니다.

노아와 그의 일곱식구가 의를 전파하였기 때문에 홍수에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전파해야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 선생과 저들을 따르는 우리들은 홍수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소돔 땅에 입했던 유황불에 태워져 죽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의를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따르십시오. 결코 당신을 유혹하는 거짓 선생을 따르지 마십시오.

5. 베드로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오히려 담대하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며 떨지도 않은채 하나님의 자녀들을 훼방한다고 했습니다(벧후 2:9-11). 나는 행여 믿는 자를 멸시하는 자는 아닙니까?

▶ (그룹제안): 거짓 선생들이 스스로 지은 말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

[벧후 2:9]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벧후 2:10]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훼방하거나

[벧후 2:11]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훼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시니라

입니까? 당신은 거짓 선생들로 인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9절 상).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법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건져내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건치 못한 자들은 지금도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10절 상).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경건치 못한 자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악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죽을줄도 모른채 고집하며 두려워 떨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건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들의 목숨을 이미 포기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건만 어찌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방한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라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려 훼방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훼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11절). 크고 두려운 형벌은 경건치 못한 자들의 것입니다. 당연히 저들의 것입니다.

6.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 저주의 자식이라 말하였습니다(벧후 2:12-14). 이들의 최후는 멸망 뿐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생들의 최후가 비참한 것은 저들이 성도를 유혹하여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짓 선생들과 함

[벧후 2:12]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훼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벧후 2:13]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께 하여 저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
누구라 하였습니까? 당신은 혹 거짓 선생의 유
혹에 빠져 그들과 어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주변에 누가 거짓선생인지 살펴 봅시다. 당
신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가 혹 거짓 선
생과 어울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
봅시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는 거짓 선
생들을 가리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
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꾀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12절).
저들이 이성없는 짐승과 같기 때문에 저들은 저들이 무엇을 잘못
행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꾀방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을 당할 것임도 깨
닫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이러한 그들과 함께 하는
성도들 역시 저들처럼 이성없는 짐승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들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
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
고..."(14절 상). '음심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음녀' 또
는 '간음하고 있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생은 음녀와 같아
서 이들은 우리들을 음란한 자로 만듭니다. 거짓 선생과 함께 하
는 자들은 저들처럼 음란한 자가 되어서 결국 신망되신 주님을
버리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세상과 벗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 중에 지금은 세상과 벗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많은 것은 거짓 선생들이 이들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저들
의 음란한 기쁨부음을 성도들에게 부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은 끊임없이 군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 군세
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14절 중).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 저주
의 자식이라"(14절 하).

베드로는 이들 거짓 선생들이 발람의 길을 좇는다고 하였습니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벧후 2:14]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
고 군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
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
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 도다..."(15절 상). 저들이 발람의 길을 좇는 자와 같은 것은 저들이 불의의 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의의 샅을 사랑하다가"(15절 하). 발람은 불의의 샅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악한 예언을 해 줬던 자입니다. 발람의 최후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거짓 선생들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의 샅을 바라고서 성도들을 유혹하여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불의의 샅을 바라며 성도를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들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샅을 바라며 일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것은 우리의 샅을 바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과 같은 선한 목자입니다. 거짓 선생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성도들로부터 샅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당신은 거짓 선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당신이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당신이 거짓 선생이 된다면 당신 삶은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거짓 선생이 된다면 당신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8.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샅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나귀의 책망을 받았습시다(벧후 2:15-16). 우리는 불의의 샅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샅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발람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나귀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혹 당신은 발람 선지자처

[벧후 2:15]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샅을 사랑하다가
[벧후 2:16]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럼 불의의 삶을 바라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저주의 자식'이었던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발람은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최상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귀했으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의의 삶을 원했을 때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삶은 고귀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능력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삶은 오히려 저를 죽이는데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부유한 자였지만 가장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수명이 다하여 죽지만 발람은 하나님에 의해 채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발람의 길을 좇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불의의 삶을 바라는 자는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 발람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40년 동안이나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꿈을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왔습니다. 그렇기에 모압평지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미있는 때에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간간함을 기울였습니다. 마귀는 발람이라는 복술가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계획했습니다. 마귀의 계획대로 발람은 이스라엘 멸망을 위해 모압왕과 미디안왕들과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 발람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이라는 염병에 걸리고 말았으며 그 일로 인해 2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염병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모압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임한 재앙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은 '음란' 염병이었습니다. 모압의 음란한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며들어와 교묘하게 음란병을 옮긴 것입니다.

"[민 25:1]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

작하니라 [민 25:2]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민 25:3]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은 여러 신을 섬겼는데 그 중의 대표적인 신은 바알신이었습니다. '바알브올'이라고도 불리우는 바알신은 생산과 다산(多産)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모압 백성들은 풍성한 생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바알신을 섬길 때 난잡한 혼음(groupsex)을 행했으며 사람을 바알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바알송배자와 바알신전의 여인들과의 음행은 바알신 제사의 절정에 달하는 제사 방식이었으며 바알송배자는 반드시 그런 추잡한 행위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은 발람의 잔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땅에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바알송배 여인들간에 행음이 이뤄졌던 것입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행음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되리라"(3절)고 언급하였습니다. '부속되다'는 히브리어 <이차메드>단어는 '예속시키다' 또는 '명예를 지우다'라는 뜻으로 켈레야 켈 수 없는 완전히 밀착되고 종속된 상태를 말합니다. 모압 여인들의 음행이 얼마나 악랄한 것이었으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완전히 모압 여인들에게 녹아들어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 전체에 음행이 연병처럼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해당된 자들을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목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명하여 바알브올에게 부속된 모든 사람을 죽이라 명하였습니다.

"[민 25: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와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민 25:5]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렇게 죽임을 당한 자의 수가 무려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시몬지파가 가장 많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되었는데 시몬지파의 인구가 이 일로 거의 3,7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시몬지파의 수가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줄어 들었던 것입니다.

"[민 26:14]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이만 이천이백 명이었더라."

바알브올 음행사건에 연루된 대표적인 인물은 시몬지파의 한 족장인 시므리였습니다. 시므리는 미디안 다섯 왕의 한 사람인 수르의 딸 '고스비'와 음행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창으로 저들의 배를 뚫어 한꺼번에 둘을 죽임으로 모든 염병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민 25: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민 25:7]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민 25:8]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모압평지에서 일어났던 음행으로 인한 염병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을 행한 사건은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바알숭배 여인들과 음행을 행한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공공연한 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비록 이 음행염병에 연관된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미 바알 우상에 대한 추악한 음행의 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인식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한사람으로 인한재앙

모압평지의 염병 사건은 발람으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 사람때문이 아니라 단 한 사람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재앙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수도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두고 두고 큰 수치와 모멸감을 안겨준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치명적인 재앙을 받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 역시 한 사람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 갔습니다.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세상적인 정욕에 빠지게 될 때 그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고통을 당합니다.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하기엔 그 상처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지만 모든 고통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정이 잘못을 행할 때 그 죄 값은 온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할 때에 그 죄 값은 자손 삼 사대에 이르기까지 죄 값이 이어집니다.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발람, 그는 누구인가?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브올에 살고 있었던 복술가였습니다. 그는 매우 유명한 복술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왕 발락은 복술가 발람을 모셔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것입니다.

"[민 22:5] 그가 사자를 브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브올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민 22:6]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 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앎이니라"

모압왕 발락은 복술가 발람을 부르기 위해 미디안 장로들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냈습니다. 모압과 브올까지의 거리는 대략 65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이렇게 먼 거리에 사는 발람을 급히 불러오게 했던 것은 그만큼 그의 심정이 두렵고 떨렸기 때문입니다. 발람왕의 두려움의 실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람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모압 고원지대에서 눈을 들어 보면 모압평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술가가 복을 비지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말은 사실입니다. 복술가에게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神通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복술가에게만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두 이뤄집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러한 말이 쓰여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발휘됩니다. 단순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뤄집니다.

"[요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통적으로 복술가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술가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복술가였던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지만 세상적인 복술가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술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이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복술가는 마귀의 힘을 빌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저주의 주문을 걸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술가가 어떠한 초능력적인 힘을 빌어 그런 역사를 행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복술가의 능력은 모두 마귀의 힘을 빌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복술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은 발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점쟁이나 무당들도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과 같은 것입니다.

발람이 어떠한 경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발람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복술가에게조차 음성을 들려주셔서 선택된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처음 발람에게 장로들이 찾아 왔을 때 발람은 곧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민 22:13]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매우 잘 듣고 있으며 대화가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 22:9]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 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민 22:10]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민 22:11]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민 22:12]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모든 복술가들이 저마

다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복술가들이 점을 치거나 어떠한 것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주로 한적한 곳을 찾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도 자신의 신과 접촉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대일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도 항상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막 1:35]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기도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대로 발람에게 전했습니다. 그것도 세 차례나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던 발람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람이 화를 냈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모압왕 발람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발람에게 신변의 위협을 가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는 중대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발람의 이스라엘 축복의 말을 듣는 발람왕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발람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서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발람은 화를 내는 발람에게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와 말씀할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민 23:13)고 강력하게 말하였습니다. 발람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말을 읽으면 발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 24:5] 아랍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민 24:6] 그 벌어진 것이 골짜기 같고 강 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와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민 24:7]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토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토다 [민 24:8]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토다 [민 24:9] 풀이 앓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킨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토다"

또한 발람은 단순한 영적인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주변의 나라들의 흥망성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민 24:15] 노래를 지어 가로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민 24:16]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민 24:17]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민 24:18]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민 24:19]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민 24:20]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민 24:21]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민 24:22]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 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민 24:23]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 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 때에 살 자가 누구이라 [민 24:24] 갓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수르를 확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민 24:25]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발람의 대언한 말을 읽으면 발람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바꾸지 않았으며 듣는 그대로 전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떨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18절)고 말하였습니다. 발람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화를 내는 모압 왕 발락 앞에서도 똑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발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락은 모압 왕 발락이 장로들을 보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니 가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22:13]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두번째 모압왕 발락이 장로들과 더 높은 귀족들을 다시금 보냈을 때에도 발람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기에 곧장 발람은 길을 떠날 차비를 갖췄습니다.

"[민 22:20]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민 22:21]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민 22:22]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와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모압을 향해 길을 떠났지만 여호와와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고 가로서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자신의 죄가 있다면 그 죄 값을 치루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것이면 모압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민 22:34] 발람이 여호와와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는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습니다. 이방인 복술가였던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발람에게 임하자 발람에게 여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민 24:1] 발람이 자기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술을 쓰지 아니하고 그 낮을 광야로 향하여 [민 24:2]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민 24:3]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민 24:4]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옆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눈을 감았던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도 하고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또는 '옆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이 성령의 감동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면 눈을 감게 됩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없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주 "[마 11:15]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니다.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는 환상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육적인 눈이 감겨지고 오히려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이상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드려서 눈을 뜬 자'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저가 움직이지도 않고 활동하지 않지만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러가지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비록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은 항상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이 임할 수 있었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에게도 발람에게 나타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발람

하지만 발람에게 재리의 유혹이 슬그머니 찾아 왔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두번째로 높은 귀족들을 다시금 발람에게 보냈을 때 발람의 마음에 약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재리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포착하고 있습니다.

"[민 22: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떨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민 22:19]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 보리라"

비록 발람은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어 떨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 재리의 유혹이 슬그머니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한번 하나님께 모압 땅에 갈 것인지를 여쭙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 장로들이 왔을 때 모압에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발람이 매우 꼼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 듣고서 곧 바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에

비해 여러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다른 음성들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발람의 재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한 것은 매우 심사숙고한 태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람의 심령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이있게 묵상할 때 발람의 숨어있는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재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은 처음 들었던 음성과는 사뭇 다른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왕 발락의 유혹이 거절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발람처럼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재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을 가리켜 '선입견 음성'이라고 합니다. 선입견이 들어간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정욕이 묻어져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놀러가고 싶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빼고 가족끼리 모처럼 야유회를 가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너무나 가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제안을 뿌리치기엔 너무 매몰찬 부모처럼 느껴져서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성령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성령하나님께 여쭙 때 어저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 가라... 네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가면서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은 선입견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 속에 세상의 정욕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경우도 선입견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선입견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 늘 정결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정욕도 취해서는 안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현금을 많이 내는 성도는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많이 내는 성도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선입견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흔한 것입니다. 목사 스스로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목사 스스로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 때에 선입견 음성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매사에 정욕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지나치게 자만심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자기 비하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깨끗하게 살아야만 선입견이 없는 깨끗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압왕 발락은 복술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모압 변경의 끝인 아르논 근처 성읍까지 가서 그를 마중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일개 복술가를 이처럼 대우했을 때는 발람에게 있어서 매우 큰 기쁨이 아니될 수 없었습니다. 어찌면 발람이 모압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죄를 제공하게 된 것도 모압왕의 지극정성어린 환대 영향일지도 모릅니다. 모압왕은 발람을 만났을 때 "내가 특별

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면서 "그대야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발람에게 많은 재물과 함께 큰 명예가 주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모압왕이 제시한 재물과 명예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일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 중에는 발람처럼 재물과 명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발람의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발람의 뒤를 따르는 자는 발람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발람의 죄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벧후 2:15]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브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 [벧후 2:16]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또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다음과 같이 발람의 죄를 질책했습니다.

"[유 1:11]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발람의 꾀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염병으로 죽임을 당한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계 2:14]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일어난 문제를 보면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나 은사가 많은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성도로 인해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자가 있는 교회는 능력도 강력한 반면에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보다 성령사역하는 교회를 비교할 때 성령사역 교회의 교인수가 적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기때문에 교인수가 늘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교회내에 발람과 같은 능력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언뜻 보면 발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전달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만일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금방 사람들의 눈에 쏠 것이며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관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런 발람과 같은 사람때문에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런 발람과 같은 사람을 매우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이방인 복술가에 대한 기록치고는 매우 많은 분량을 할애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의 내용이 많이 할애된 까닭은 발람의 죄로 인한 저주가 다시는 임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만 보면 발람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그대로 발람에게 전하였습니 다. 비록 발람이 엄청 화를 내고 "당장 내 앞에서 꺼지라"는 심한 욕설을 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변질시키지 않았습 니다. 들은 그대로 전하였습니 다.

하지만 그는 발락과 헤어진 이후에 곧장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 다. 그는 미디안으로 갔습니 다. 그 리고 미디안 부족 다섯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묘책을 전했습니 다. 이러한 묘책에 모압왕도 가담하였습니 다. 결국 발락의 계책대로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 고 음행을 저질렀으며 바알우상을 섬기게 했습니 다. 이스라엘은 발람의 계책으로 인해 일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야만 했고 자칫 잘못했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숭배할 뻔 했습니 다. 하나님 은 곧장 미디안을 치라 명하셨고 모세는 미디안을 쳐 멸망시켰습니 다. 그들이 멸망될 때 발람도 함 께 죽임을 당하였습니 다.

"[민 31:7]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 였고 [민 31:8]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워와 레겔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미디안 다섯 왕과 함께 죽임을 당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발람이 자신의 고향 인 메소포타미아에 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발람이 발락과의 헤어진 이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디안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들은 음성을 변질시키지 않고 들은 그대로 전하였던 발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인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실로 큰 충격이 아 닌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정욕에 눈이 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9.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세상에 얽매일 때에 우
리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입니
다(벧후 2:20-21). 나는 혹 예수를 믿기 전보다

[벧후 2:20]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
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
하리니

더 형편이 심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얹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세상에 얹매일 때에 우리의 형편이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혹 당신은 예수를 믿기 전보다 지금의 형편이 더 심하지는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얹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얹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20절)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비참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거짓 선생의 유혹에 빠져 저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보다 훨씬 비참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 중에는 삶이 이전보다 비참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의 유혹에 빠져 저들을 좇다보니 저절로 저들의 삶이 비참해진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비참해졌다면 어쩌면 당신은 거짓 선생을 좇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어지간해선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좋아집니다. 더 부유해지며 더 건강하며 더 가정의 화목함이 있습니다. 더 기쁨이 있고 더 신명남이 있습니다. 더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거짓 선생과 함께 하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10. 거짓 선생과 그들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 적절한 속담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것입니다(벧후 2:22). 나는 혹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먹고 돼지처럼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벧후 2:21] 의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벧후 2:22]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 (그룹제안): 베드로는 거짓 선생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속담이 어울린다고 하였습니까? 혹 당신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먹는 것과 돼지가 몸을 씻고 서 다시 구덩이에 눕는 것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이전의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당신 스스로를 돌아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삶이 비참해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축복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상의 모습으로 빚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지금 모습은 어딘지모르게 걸작품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누군가 당신을 인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 선생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은 그런 거짓 선생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당신 본연의 모습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이 다시금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점차 하나님의 복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쁨진 복이 당신을 높이 세울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 앉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병들어 누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생기가 당신의 골수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당신의 심령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11.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롱할 것입니다(벧후 3:3-5). 이런 자들의 말에 속는 자는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나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벧후 3:3]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벧후 3:4]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벧후 3: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르짖으려 하니로다

이 어떤 말로 성도를 기롱한다고 하였습니까? 혹
당신 주변에 이러한 기롱하는 자가 있지는 않습
니까? 당신은 진정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습
니까?

베드로는 '기롱하는 자'에 대해 주의하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기롱하는 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거짓 선생'과 같은 자입니다. 이들은 "...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4절 상)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성경지식을 가르칩니다. 이들은 "...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4절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결코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결코 주님의 재림을 통해 사람들이 멸망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언뜻 이들의 말을 들으면 멸망당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 같으나 그들의 말을 듣다가는 오히려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롱하는 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를 기롱하는 자는 모든 성경 말씀을 엉터리로 꾸며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사실조차 부인할 정도로 이들은 모든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며 잘못 가르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5절).

만일 당신이 이런 기롱하는 자와 함께 한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성경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말씀을 읽고 연구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기롱하는 자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12. 이 세상은 이전에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 이제
는 불로 멸망당할 것입니다(벧후 3:6-7). 의롭지 못한 자들이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 우리들 중 의롭지 못한 자는 불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

[벧후 3:6] 이로 말미암아 그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벧후 3: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다. 나는 불로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이 지구가 이전에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 무엇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당신은 이 지구가 불로 멸망을 당할 때에 구원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불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이 땅이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듯이 이번에는 불로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듣기 싫은 말이지만 이 땅은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7절 상).

거짓 선지자는 심판이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도 심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거짓 선생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기롱하는 자 역시 심판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전합니다. 만일 당신이 말세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거짓된 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말세에 불로 심판을 당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미 당신은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침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13. 주의 약속을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벧후 3:9-10). 이는 회개함으로 인해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멸망당하지 않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왜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멸망 당하지 않기 위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벧후 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신은 회개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의 재림이 생각보다 더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주님의 재림이 더디 이뤄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9절).

베드로는 우리가 멸망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라고 말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당한 회개야말로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없이는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가리켜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의식은 회개와 구원의 과정을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물 속에 넣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죄가 물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죽은 자가 땅 속에 묻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가 온전히 물 속에 잠기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아닙니다. 만일 산 자를 땅 속에 묻어버린다면 산 자가 슬퍼할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온전히 물 속에 묻어져야 합니다.

"[골 2: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4. 이 세상은 하늘의 불에 의해 멸망 당할 것입니다(벧후 3:11-13).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약

[벧후 3: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벧후 3: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

속대로 의의 거할 때에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는 의의 거하는 자입니까?

▶ (그룹제안): 이 세상이 하늘의 불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의'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런 다음에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물 속에 묻어 버린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 죽은 자 중에서 우리 주님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회개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아버지께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는 서둘러 회개해야 합니다. 서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은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 년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천 년처럼 오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주의 재림이 어느날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 주께서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8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임할 주님의 날을 생각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날을 준비하십시오. 그 날에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입니다. "...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10절 중).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주님의 날에 우뚝 설 것입니다.

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벧후 3: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 세상은 날아가고 녹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
한 자들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15. 베드로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
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하였습니다
(벧후 3:14).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거
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 어
떤 삶을 살라고 권하였습니까? 당신은 지금 거
룩한 신부로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점과 흠이 있게 만
들고 평강치 못한 삶을 만드는 요인은 무엇입니
까?

베드로는 최종적으로 성도들에게 "...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14절 하)고 권하였습니
다. '점'<아스필로스>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을 의미
합니다. 이에 비해 '흠'<아모메토스>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상
태를 의미합니다. '점'이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흠'은 영적인 관점
입니다. '점'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이라면 '흠'은 하나님과
의 관계에서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점'은 '정결'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흠'은 '거룩'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이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
끗함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에이레네>은 '평안'입니다. 이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
님께서 주신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평안에 대해
너무나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말
씀을 다시 한번 들어 보십시오.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

[벧후 3: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
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
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안'은 모두가 다 <에이레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그런 평안을 갖길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런 평안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점도 흠도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점도 흠도 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점이 있고 흠이 있다면 그 점과 흠은 우리의 평강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을 파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점과 흠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강력이 아닙니다. 다른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점도 흠도 없는 상태가 가장 악한 세력을 파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16.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벧후 3:15-16).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무식한 자이고 굳세지 못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글을 억지로 풀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는 어떤 자들에게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까? 당신 주변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 억지로 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당신은 그런 억지부리는 사람 아닌지요?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억지로 푸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16절 하)고 아주 강력한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 억지로 푸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억지로 풀다' <스트레블로오>라는 말은 '왜곡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틀린'이라는 <스트레블로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마치 오징어를 볼

[벧후 3: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벧후 3: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에 구울 때 몸이 비틀어지듯이 그렇게 뒤틀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고문을 당할 때 몸이 비틀어진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몸을 비비꼬는 재수없는 사람의 모습도 상상해 보십시오. 이처럼 '억지로 풀다'는 아주 많이 뒤틀려져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억지로 푸는 사람'은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보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할 때에 이처럼 억지로 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나 지식이나 감정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억지로 푸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식의 해석을 가리켜 '사사로이 푸는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역시 억지로 푸는 사람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벧후 1:20]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처럼 억지로 푸는 자들을 향하여 "...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16절 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조금 심하다 싶은 발언을 한 것은 정말로 그들이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식하지 않았다면 결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억지로 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굳세었다면 그렇게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굳세지 못한' <아스테릭토스>라는 말은 '확고하지 않은', '불안정한'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단하게 고정시키다' <스테리조>에 부정접두사 <알파>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해석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식과 의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억지로 풀었기 때문이며 사사로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장에 맞춰서 성경을 풀었기 때문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멸망에 이를 것임을 알았습니다. "...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니라"(16절 하). 그들이 멸망에 이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저들만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지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저들을 따르는 성도들만 볼

쌘합니다. 아무 것도 모른채 그저 좋은줄로만 알고 들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따랐던 것이 그만 저들까지 멸망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푸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사람과 함께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은 성령님만이 풀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만이 해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후서반 교재

초판발행 2019 10. 10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হল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터목사)
홈페이지 www.WalkingWithBible.com / www.Warba.com
이 메 일 mail@walkingwithbible.com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의 신학교로서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6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입학이 가능하며 한부분 사역자일 경우 학비 면제를 받습니다.

● 접수: www.wslseminary.com

● 이메일: inourlove@gmail.com

● 문의: 손에스터목사(010-3909-8844)

● 유튜브채널: www.RevivalForChurch.com